

16/06/12(주) 주일예배 / 제목 :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 5:7) p.5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해서 거절당하고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낫을 사가지고 와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바로 그 이웃집에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며칠 전에 제가 가서 거절당한 집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지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다. 그렇지만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고 말하며 빌려주면 이것은 증오다. 그러나 거절당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저 집이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면 이것은 긍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복수’의 마음이 되고, ‘증오’의 마음이 되고, ‘긍휼’의 마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범사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팔복 중에서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본론 / 긍휼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홀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우리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의 느낌으로 느끼는 공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물과 사건을 경험하고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느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인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남을 동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동정을 베풀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홀하심은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1.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홀 베풀 것을 말씀하고자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공홀이 없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18:23~35) “23.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값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로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내용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내용입니다. 10,000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약 42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청산할 수 없는 거대한 빚을 진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약 500만원) 빚진 동료에게 공홀을 베풀지 아니하고 매몰차게 당장 갚으라며 목살을 잡고 값을 여유를 달라고 애원함에도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은 몰인정하기 그지없는 악한 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를 알게 하여 다

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짓는 죄는 아무 것도 아니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42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잘못은 내가 하나님께 짓는 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염두해 두고서 베드로와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벧전2: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런데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긍휼없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약2: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2. 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긍휼 베풀 것을 말씀하고자 **‘부자가 나사로를 보라’**도 말씀하셨습니다.

(눅16:19~31) “19.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데 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데를 핥더라 22.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처럼 살아생전에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한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긍휼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2. 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3.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시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웃에 대해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전부를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시 붙잡혀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근거인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율법에 정통한 율법교사로부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눅10:26)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눅10:27)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고 대답하자 (눅10:28~29)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눅10:30~37) “30.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러한 비유 말씀을 하시고 그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우리 주님은 ‘누가 선한 이웃이냐?’ 고 물으시며 이것이 긍휼의 모습임을 말씀하십니다.

강도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었습니다. 이들이 강도만난 자를 피하여 그냥 지나간 근거는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레위기 21:1~3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레21: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 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 강도만난 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제사장 과 레위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 을 주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도, 백성들에게 봉사할 직무를 맡은 제사장으로서도(민 18:1-32) 용납될 수 없는 과오였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사람이 없었다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만난 자를 죽어가도록 방치한 죄를 범한 것입 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 는 혼혈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혼혈족이라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처럼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참 으로 강도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17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일3:17)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나?” 긍휼이 여기는 성도가 되시어 항상 하나님 의 사랑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배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인도의 ‘간디’가 한번은 강연 하러가던 중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가까스래 타다가 신발한쪽이 벗겨져 플랫폼에 떨어졌고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간디는 다른 한쪽 도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혹시 가난한 사 람이 저 신발을 줍게 된다면 한쪽만 가지고 신을 신을 수 없기에 다른 한쪽도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은 비싼 가격의 신발은 아니지만 작은 신발한쪽이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런 긍휼이 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5:7)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즉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9: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2: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긍휼 받은 우리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장이 아픈 사람을 긍휼이 여기면 나도 위장의 아픔을 느낄 것이고, 무릎 이 아픈 사람을 긍휼이 여기면 내 무릎도 힘이 없음을 느낄 것이고, 그 사람의 통증을 느끼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 긍휼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두 사람 모두 치료 해 주실줄 믿습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공홀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홀을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상급이 충만하며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37:26)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결론핵심 : 공홀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공홀하심을 받으시다.

요약정리 / 공홀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2. 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3.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